

10.27 특별법 시행령 조계종-국방부 '불협화음'

교계 "보상부분 배제" 반발...이전 못 좁힐 땐 법시행 불투명



5월 22일 국방부 김중현 차관을 만나 협의하는 10.27법안특별법제정추진위 관계자들.

<1면에서 계속>시행할 한 달 앞두고, 10.27법안 특별법 시행령(안)에 불교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교계 안팎에서는 "가해자인 국방부가 10.27법안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0.27 법안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5월 22일 연석회의를 갖고 "명예회복의 핵심인 기념관 건립 지원 등 보상 부분을 배제하는 등 국방부가 사실상 법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

쟁점사항	조계종 입장	국방부 입장
예산지원	법률에서 보상, 기금 출연이 제외되었으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념사업은 지원 가능	법 제정과정에서 보상, 기금출연이 제외되었기에 별도 예산 지원은 불가
기념사업	기념행사, 추모단체 지원, 기념관 및 사료관 등 건립, 학술 및 연구활동 등의 기념사업 시행 필요	법 제정과정에서 보상, 기금출연이 제외되었기에 별도 예산 지원은 불가
위원회 구성	위원은 차관급 이상, 시행령에 '피해종교단체 추천자'를 명시, 불교계 참여를 보장해야 함	위원은 국장급 이상, 불교계 참여 여부와 협조 필수적이나 명시에는 부정적
운영체제	피해자가 스님에게 분과구성 보다 실질적인 실무지원단 구성	피해자여부 심사분과위, 의료지원금관정분과위 구성, 위원회 직원은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 가능

행을 저질렀던 국방부와 정부가 사무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불교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6월 말 시행이 예정된 '10.27법안 특별법'은 6월 15일 '시행령' 입법예고 시한까지 조계종-

국방부의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 시행자체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조계종과 국방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을 도표로 정리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buddhapia.com

"선학원 이사회 일괄 사퇴해야"

대운 스님 등 이사 5인 재단 정화·개혁 촉구

2004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 임직이후 분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온 선학원에 대한 자정 및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운(지장선원), 보운(천진선원), 철오(선학원 총무이사), 영주(법수선원), 상원(보명사) 스님 등 선학원 이사들은 5월 22일 조계종 총무원내 찾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학원 이사회의 일괄 사퇴 및 해산을 주장했다.

선학원 이사들은 '사부대중께 드리는 말씀'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선학원 내부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재단 내부 문제를 사회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정화를 통해 선학원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오 스님은 "법진 이사스님이 선학원에 몇 개 되지 않은 공사할 중 하나인 금정사 등에 대해 오랜 세월동안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며, "금정사 횡령사건 조사를 요구한 신도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금정사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철오 스님은 또 "선학원은 설

립조사 스님들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선학원 이사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1921년 창립된 선학원은 540개 사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일제강점기 조계종의 정신적인 근원인 선풍(禪風)을 진작시킨 단체이다. 만공, 한암 선사 등 무수한 선지식을 배출한 선학원이 본래의 가풍을 되찾고 한글 탈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우 기자

정부 '종교자유 보장 요청' 나몰라라

'초파일 협조공문' 발신 65곳 중 10곳만 회신

불교계의 '부처님오신날 종교자유 보장' 요청에 정부 기관단체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인식, 이하 종평위)가 지난 4월 정부 기관과 군·경·검찰 등 총 65개 기관에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한 협조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에 대해 불과 10개 기관에서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종평위는 이 공문에서 중앙부처와 각 관계부처주관에는 '비공식 행사

차례요청'과 '부처님오신날 기간 중 관계기관·부처에서 행사와 기타 일정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침 하달요청'을, 교육부와 국방부에는 '학생들과 국군장병들에게 종교자유보장 요청' 등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5월 20일, 종평위에 따르면 현재 10개 기관에서 보내온 회신 내용은 각각 달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지침시달 등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

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국방부는 "조계종 군종교구를 통해 (종교 자유 침해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신을 보냈다. 또 인천시·강원도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등도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강진 기자

봉은사신도회 北동포 지원

봉은사신도회(회장 황남수)는 5월 23일 백기완 선생의 통일문제연구소에 북녘 동포들이 쌀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봉은사 신도회에서 모아둔 1천만원과 사찰 쪽에서 지원한 1천만원으로 마련됐다.

황남수 신도회장은 "최근 북쪽에서 식량부족으로 아사자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북쪽의 식량 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요양보호사 교육 시동

올 7월 시작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이 6월 9일부터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에 나선다.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필요성을 인지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 초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와 협의,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화인(花人) 노인보호사 교육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화인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올 초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취업할 불가 인력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일 종단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화인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는 6월 9일-7월 25일 7주간 진행될 제1기 교육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비는 교재·실습비 포함 60만원. (02)723-5101 김강진 기자



5월 20일 봉행된 조계종 전법회관 상량식.

<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종 전법회관 상량식 봉행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참석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포교 1번지 자리 잡을 조계종 전법회관 상량식이 5월 20일 서울 수송동 전법회관 건립 현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기획실장 승원, 재무부장

장직, 불교중앙박물관 범하 스님과 시공사인 (주)성일건설 황윤성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공사 막바지에 들어간 전법회관은 부지 363.6㎡(110평)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건평 3636.4㎡(1100평)으로 건립되며, 각 전법기관과 신행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선리연구원 우수상 추수사태

교계 학술단체의 학술상 선정이 취소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당초 선학원 선리연구원 학술상 우수상에 선정됐던 문물식 박사(원광대 강사)는 5월 20일 제2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후 '취소'를

바사론>의 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불참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문을 식 박사의 우수상 선정이 취소됐다. 당사자도 완성논문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진공청소 물걸레청소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 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KM (주)경민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쇼핑 마미로봇

황우석 박사의 애완견 복제 상업화 착수를 국민과 더불어 환영

황우석 박사의 세기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이 필요합니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 분야의 기술력 확인

미국 오리온 그룹의 창시자인 존 스펠링 박사가 기르던 애완견 미시(Missy)의 세포를 다른 개의 난자와 결합시켜 5마리의 복제견을 탄생시켰습니다. 10년동안 미국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진행했으나 실패했던 애완견 연구복제 사업(미시 프로젝트를) 착수와 함께 바로 성공하였습니다.

맘모스의 복제도 가능할 금세기 최고의 복제기술

동물 복제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죽은 애완견의 세포로 복제견을 탄생시킨 것이어서 전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사인 뉴욕타임즈, CNN, ABC 등은 1면 톱기사로 전세계에 타진하고 있으며, 맘모스 부활이나 영화에 나올 법한 유라기 공원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하게 연구승인을 보류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행 생명윤리법은 범죄혐의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연구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연구를 승인해야 합니다.

한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는 대한민국의 기술

세계 최고의 동물복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연구 분야에서도 다시 성공해야 합니다. 김선종의 바뀌치기로 인하여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연구재연을 넘어 연구승인을 통해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난치병 치료와 국익 그리고 차세대 미래산업을 선도할 줄기세포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인류의 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명박 정부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에 방해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석 지킴이 불자모임

http://cafe.daum.net/buljahws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충암 B/D 4층 401호(우편번호 110-130) TEL 02)723-5126 / FAX 02)722-5128